

인계 · 동계 · 적성 · 팔덕초 어울림학교

한마음체육대회...학생 · 학부모 · 교사 · 주민 '잔치'

싱그러운 봄, 푸르른 5월, 자라나는 아이들. 지난 3일 인계 · 동계 · 적성 · 팔덕 4개 초등학교는 2019년 함께하는 어울림학교 한마음 체육대회를 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적성초등학교(교장 박정심) 21명, 팔덕초등학교(교장 신경숙) 38명, 동계초등학교(교장 최희란) 71명, 인계초등학교(교장 유상열) 31명과 병설 유치원생, 학부모, 교사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체육대회 전부터 아이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다른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논다는 기대감으로 크게 부풀어 있었다.

체육대회 1부 시작을 연 유상열 인계초 교장은 축사에서 "여기 초등학교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가 없다. 우리 어울림학교가 생긴 큰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웃 학교 친구들과 만나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오늘 체육대회를 통해서 기존에 사귀지

구들은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 또 새로운 친구 1명씩은 꼭 사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체육관 무대 양쪽에 걸린 현수막에 적힌 "우리는 하나다!" "이 세상 최고의 보물은 우리 어린이입니다!"를 제창하고, 이어 어린이날 노래 합창과 준비운동을 하며 체육대회를 준비했다.

1부 게임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전부 참여하는 통나무 뛰어넘기로 시작했다. 이어 3인 1조로 봉을 들고 반환점 돌아오는 유치원생 한마음달리기와 엄마한마음달리기, 낙하산달리기, 지네달리기, 드림탑쌓기, 게줄당기기, 큰공굴리기 등 평소 쉽게 해볼 수 없는 새로운 게임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1, 2부 마지막 순서인 학생과 부모들의 청백제주 게임 때는 응원 함성으로 체육관이 들썩일 정도였다. 4개 초등학교가 참여한 체육대회지만 어울림 한마당의 취지를 살려 지나친 경쟁보다는

학생 · 학교 · 학부모 · 주민 간의 화합의 장이 되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체육관 앞 곳곳에 돗자리가 펼쳐졌다. 통닭, 떡, 돈가스, 김밥, 과일 등 아이들은 부모님이 정성껏 준비해 온 음식으로 맛있게 점심식사를 했다.

"도시 학교에 비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다"는 성금실 학부모(팔덕

초)는 "도시학교 학부모들이 이런 어울림학교나 작은 시골학교 교육이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견학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면서 작은 농촌학교 학생 유치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부모 · 할머니와 함께 참가했다는 박윤(적성초 3년) 군은 "적성초는 학생이 9명이다. 게임할 때마다 학생 수가 적어 재미가 덜하다. 그런데 오늘 많은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 할 때 제일 신났다"면서 "수건으로 꼬리 만들어 꼬리뺏기 게임이 제일 재밌었다, 엄마랑 아빠랑 할

머니와 함께 와서 더 좋았다"고 말했다. '어울림학교'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들이 자치적으로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돌아오는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이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지정 운영하는 학교로 2015년에 시작했으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2018년부터 2기 어울림학교가 운영 중이다.

윤승희 기자

2nyblue@openchang.com



▲인계 · 동계 · 적성 · 팔덕 초등학교생과 유치원생들이 공중에 매달린 커다란 바구니에 색깔의 공을 던져 넣으며 즐거워하고 있다.